

# 체크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추월'

카드 이용실적 전년 동기대비 13.3% 늘어 신용카드 증가율 8.3% 앞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 소득공제를, 연회비 등의 장점에 힘입어 사용이 두자리수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3.3% 늘어 신용카드 증가율 8.3%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발급 장수에서도 이미 신용카드를 2500만장이나 추월했다. 물론 아직 사용 금액 면에서는 신용카드가 여전히 크게 앞서지만 최근의 급증 추이는 놀라울 정도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의한 결제금액(일평균 391조5000억원)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했다.

우선 계좌이체가 5.4% 늘어난 368조 7000억원(일평균)으로 나타났다. 금융점에 힘입어 사용이 두자리수로 늘고 있다.

반면 어음·수표 결제규모는 일평균 20조621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했다. 자기앞수표 및 당좌수표 이용 감소, 약속어음 발행 축소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온라인쇼핑 등에서의 이용 확산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한 1조7624억원, 체크카드는 13.3% 증가한 4581억원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카드 가운데 모바일 신용카드는 2016년 이후 PC 기반 위주의 온라인 쇼핑이 모바일 기반(2017년 상반기 온

라인쇼핑 이용실적의 59.5%를 차지)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1.2%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지급카드 전체 이용실적에서 체크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힘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체크카드의 이용실적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체크카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2배 수준이다. 또한 체크카드는 대체로 연회비가 무료이면서 청구할인(캐시백), 영화관·놀이공원 현장할

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상반기 말 현재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1억 2266만장(전년말대비 2.2% 증가)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 9749만장(전년말대비 1.9% 증가)을 상회하고 있다.

일평균 결제건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각 3129만건, 1937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8%, 16.7% 증가했다.

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각 4만4395원(71.2%), 2만3642원(-2.9%)으로 감소해 이용금액의 소액화 경향이 지속됐다.

편의점, 슈퍼마켓, 대중교통 등에서의 지급카드 사용 보편화로 지급카드가 현금에 대체하면서 이용금액의 소액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이벤트 진행

KB국민은행, 12월 말까지... 커피·영화 상품권 등 지급

KB국민은행은 12월 말까지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밝혔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가입금액에 따라 영화상품권 또는 커피상품권을 가입 고객 전원에게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200만원을 총 40명에게 각각 지급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주식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포함해 누구

든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있고, 인제는 환매가 가능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단위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가입 가능하다"며 "상품을 분산해서 가입하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고, 급전 필요 시 일부 펀드를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펀드로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 자동응답시스템 전면 개편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전면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음성 안내를 듣고 버튼을 부르는 방식에 '말로 하는 ARS', '맞춤형 ARS', 'ARS 메뉴 보기' 등을 추가로 도입했다. 말로 하는 ARS는 '이체', '잔액조회', '상답사' 등 원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면 주요 단어를 인식해 해당 서비

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ARS는 스마트폰 이용고객의 ARS 접속이력을 분석해 최근 3개월간 5회 이상 사용한 서비스를 최대 5개까지 우선적으로 안내한다.

ARS 메뉴 보기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면

단제별 메뉴를 화면으로 제공한다.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비축미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말이었던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을 12월말로 연장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이번주내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

지급금 환급 안내문 및 고지서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재발급 대상은 8월말 기준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6만6000명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전체 환급대상 22만명 가운데 70%인 15만3773명으로 환급액은 197억원 가운데 63%인 124억원이다.

/뉴시스

##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 확대, 소득인정방식 개선해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모색방안' 발표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득인정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주회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DTI는 본질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전 차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규제는 DTI 규제가 금융규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식되는 원천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규제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경우 전국에 적

용하되 지역별로 차별화된 규제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수단으로 여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DTI 산정시 소득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행 DTI는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2~3년 이상 평균소득 등 소득 안정성 입증 자료를 토대로 소득 인정하되, 1년치 자료를 제시할 경우 80~90%만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입증에 어려운 소득은 일부 분만 인정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 인정 부분은 해당 소득의 80~90%만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감안한 소득조정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방식을 허용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차주의 소득을 엄밀

히 파악하고 소득인정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DTI 규제 수준 변동없이 규제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한 뒤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부담만을 적용하는 DTI와는 달리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김 연구위원은 "DSR 규제의 도입과 관련한 명확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DSR 규제 도입 방식이나 시점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DTI의 경우 톱다운(Top-down) 형태의 규제도입·적용방식이 오히려 가계대출 관행을 확립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 추석 성수용품, 위생·원산지 위반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용 제수용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공무원 3780명, 소비자 명예

감시원 4230명 등 8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원

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 자연의 건강한 미소

##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